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 대회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필승의 신심드높이 국가부흥의 거창한 새시대를 열어나가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가 2월 26일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대회에는 당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초급당비서, 분초급당비서들, 성, 중앙기관과 도, 시, 군급지도적기관 초급당비서들, 도, 시, 군당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 책임일군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대회장은 비상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시며 우리 국가를 사회주의리상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세차게 뿜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대회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기층조직들을 더욱 강화하고 당사업을 혁신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개회를 선언하시자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울려 퍼졌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보고를 제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초급당강화를 전당강화의 근본고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기층당 조직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들에서는 지난 기간 초급당조직

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심도있게 분석총화되었다.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전당강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가 2월 28일에 폐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2월 28일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에서 강령적인 결론 《초급당비서들은 어머니당의 참된 정치일군이 되자》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훈이 전당의

모든 기층당조직들을 전면적인 국가부흥의 새시대에 부응한 조직력과 전투력, 활동성을 지닌 총성의 대오로 정제화하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대회가 밝힌 웅대한 투쟁강령실현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된다.

김정은 원수님의 강령적인 가르침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인민의 당, 심부름군당의 정치일군으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조선로동당이 내세운 원대한 리상과 투쟁강령의 실행에 헌신분투함으로써 전당강화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에 참담게 이바지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결론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심원한 사색과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로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새시대의 명확한 투쟁방략을 밝혀주시고 전당강화의 전성기를 빛내여가시는 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리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 표창장이 모범적인 초급당비서들에게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표창수여와 관련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장내가 크나큰 격정으로 뿜어번지는 가운데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당정책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초급당비서들에게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폐회사를 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폐회를 선언하시자 《인터나쇼날》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고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열화의 환호성이 또다시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는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초급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 당대회가 결정한 변혁적과업들의 정확한 집행을 담보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실현과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의의깊은 대회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식수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식수절에 즈음하여 3월 2일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식수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리념이 구현된 또 하나의 이상거리가 일떠서고있는 화성지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식수를 하게 된 초급당비서들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당, 심부름군당의 참된 정치일군이 되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아버이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기념식수와 관련한 발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이 식수절을 맞으며 매우 보람찬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은 나라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된 역사적인 대회에 참가하여 초급당강화의 새로운 투쟁강령과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데 이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기념식수를 하는 영광을 지니게 된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입니다. 식수사업은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며 자기의 땅과 노력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미래를 가꾸어가는 성스러운 애국사업입니다.

우리 당이 가장 중시하고있는 국토 건설정책을 집행해나가는 이 책임진 사업에서도 마땅히 우리 초급당비서들이 앞장에 서야 합니다.

오늘의 나무심기는 인민의 당, 심부름군당의 정치일군들인 초급당비서, 동지들의 마음속에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는 혁명사업에 진심을 묻고 착실한 결실을 이루어갈 의지를 북돋아 주게 될것이며 온 나라에 애국의 불길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단순히 나무를 심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없을 순결한 량심을 심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는 이 나무들은 태양의 성지가 바라보이는 여기 화성지구의 풍치를 수려하게 해줄것이며 무궁토록 번영할 수도 평양의 래일을 축복하며 세세년년 푸르러 설레일것입니다.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는 우리 모두 인민의 삶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만년대계의 사업에 성실한 땅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자고 호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념식수의 첫삽을 뜨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몸소 나무를 옮겨 심으시며 초급당비서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에 애국의 열정과 당적량심을 깡그리 바쳐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튼튼히 뿌리박은 나무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듯이 인민이라는 대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은 필승불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근로인민대중속에 억척의 뿌리를 둔 전투력이 강하고 단결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초급당비서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

하여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크나큰 영광과 행복속에 참가자들은 한그루한그루의 애 어린 나무들이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흥을 떠받드는 거목으로 자라날 그날을 그리며 나무심기에 정성을 다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몸소 심으신 전나무를 배경으로 식수참가자들과 함께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식수참가자들은 인민위천을 숭고한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있는 우리 당의 참된 당일군이 되라고 고무격려해주시며 육친의 따뜻한 정을 부여하시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울리며 솟구

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기념식수를 통하여 초급당비서들은 혁명과 건설을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일관시키고 인민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복무하며 전체 인민이 리상하는 공산주의사회를 중국적으로 기어이 건설하려는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의 새 거리가 일떠서게 될 화성지구에 몸소 심으신 두그루의 전나무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날 사회주의조선에 푸르름을 더해주며 온 나라에 애국의 넋을 끝없이 심어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일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당 초급당비서들의 회합에 참가하여 조선로동당의 초석과 전투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위대한 실천강령을

반아안는데 이어 또다시 꿈만 같은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참가자들의 걱정과 환희가 활영장소에 차넘치고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당의 기층강화증시사상과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품목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초급당의 전투력이자 조선

힘있게 이끄는 강위력한 전투적참모부,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품목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초급당의 전투력이자 조선

로동당의 전투력이라는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 당의 기층조직들을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충성의 전일체, 혼연일체의 보루로 강화해나가는 사업에 전력을 다해나갈 열의에 충만된 참가자들을 격려해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앞에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오늘 당의 강화발전과 당정책관철의 제일선초소를 지켜선 전당의 초급당비서들이 화성정치일군으로서의 비상한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임무수행에 분투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펼쳐질 위대한 새시대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시면서

본사기자

고귀한 부름—인민의 심부름군당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소식을 무한한 격동과 흥분속에 접한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가슴뜨겁게 외워보는 고귀한 부름이 있다. 인민의 심부름군당!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에서 인민의 당, 심부름군당, 이것이 우리 당의 유일한 존재명분이고 최고의 정표이며 영원한 본태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심부름군당, 사전에도 올라있지 않는 말이다. 조선말사전에는 심부름이란 남의 시킴을 받아 그것을 맡아해주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하다면 인민의 심부름군당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스승이나 옷사람이기에 심부름군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의 요구라면 무조건적으로 군말없이 다 받아들이며 거기에 바쳐진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었다.

바로 그이의 말씀에 인민의 심부름군당의 참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따르는 인민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인민을 위하여 굶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몸을 적시는 오직 인민만을 위하여는 당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건설사상, 당건설리념이며 드물지 않는 확고한 의지이다.

인민의 심부름군당건설, 정녕 그것은 어제오늘에 비로소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어머니당건설의 계승이고 심화발전이다.

하기에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맞는 새해의 정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총정다해

모시며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어야 한다고 절절히 이르셨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의지와 결심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당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였으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인민의 심부름군당의 참뜻을 조국의 대지에 새겨가시었다.

역수로 쏟아지는 소낙비에 진창이 된 건설장을 서슴없이 걸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분, 한어름의 무더위에 땀으로 온몸을 적시시며 남새온실을 찾으시고 농장길을 걸으신분, 폭풍이 모든것을 휩쓸어간 재해지역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

러 위험천만한 철다리로 주저없이 걸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오로지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굶은날, 마른날도 가림없이 걸으신 그 걸우에서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무수히 일떠서고 기쁨의 웃음소리 높아갔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느해 신년사에서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지지 못하는 안락가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고 하시며 인민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된 총부,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맹약 하시였으니 그이의 무한한 위민헌신의 세계, 열화와 같은 복무의 세계를 어찌 말이나 글로써 다 전할수 있겠는가.

인민의 심부름군당.

참으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정히 받들어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평생의 일관단심으로 간직하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이 내용으실수 있는 고귀한 부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민들의 끓어오르는 격정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인다.

《인민을 위해 그 어떤 천만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심부름군당이 되려는 우리 당의 신조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하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뵈으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오직 인민만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진정에 이 한몸을 강리도 불태워서라도 그 사랑, 그 은정에 보답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격동적인 시대와 더불어 어머니조선로동당을 천만년 믿고 받들 인민의 열의가 하늘땅에 차 넘치고 공장과 일터, 협동진야들에서 거세한 창조와 혁신의 불화가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김광익

세인의 다함없는 칭송과 찬탄의 목소리

《첫 손님》이 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년전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마식령의 삭도를 자신께서 먼저 타보신 이야기는 사람 들속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이께서는 마식령의 삭도 뿐이 아니라 세형의 무쾌도 전차와 지하전동차도 선함으

로 타보시고 《철쭉》표양말도 신어보시며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모든것에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을세라 마음 쓰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애민헌신의 숭고한 모습을 보며 세인은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령도자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든다. 인민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령도자가 먼저 <첫 손님>이 되시여 삭도를 타고 유회기구를 타보는 이런 모습은 오직 이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애민헌신의 정경이다.》



험한 길 헤쳐가신 곳에는 행복의 별천지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밝은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험한 길도 앞장서 헤쳐가신다.

그이께서는 울릉불통하고 먼지가 보양계 이는 산골길을 달려 연공과학자휴양소의 터전을 잡아주시였고 휴양소가 과학자들을 위한 《금방석》이 되도록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 훌륭히 일떠 세워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인민들

의 건강증진을 위한 온천 휴양지를 마련해주시려 역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시며 양덕군안의 온천들을 돌아보시였고 물이 질박한 휴양지를 헤치시며 병원건설장도 찾으시었다. 먼지바람이 건설장에서 인민들에게 휴양소가 과학자들을 위한 《금방석》이 되도록 심혈과 로고를 기울여 훌륭히 일떠 세워주시었다.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 주시려 험한 길을 걸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세인은 흠모와 격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정은령도자의 발자취가 찍힌 곳에는 언제나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행복의 별천지가 펼쳐진다. 령도자의 헌신이 곧 인민의 웃음과 행복의 터전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온 나라가 나무심기에 떨쳐나섰다

이 땅 어디서나 봄철나무심기가 한창이다. 온 나라 산지들과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 공장과 기업소주변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체 인민이 조국산천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진국으로 더 훌륭히 변모시키기 위하여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는데 자기의 땅과 지성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시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몇해전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면서두고 교직원

들은 원아들이 나무를 심기 전에 깨끗한 양심과 불라는 애국의 마음을 먼저 묻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과 한몸이 그대로 뿌리가 되고 밀거름이 되어서라도 푸른 숲을 가꾸어가겠다는 의지를 안고 식수사업에 정성과 열정을 다 바치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또한 우리 조국을 푸른 숲 설레는 만복의 터전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산림복구전투의 불을 지피시고 직접 산림복구전투의 사령관이 되시여 조국산천을 금수강산,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러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화국의 모든 인민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것은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자각과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를 안고 나무를 심고있다.

부강번영할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을 그리며, 조국의 재부, 후대들의 행복의 밑거름을 마련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이 땅에 애국의 마음을 심고있다.

본사기자



《우리의것이 제일이다!》

— 제 2 차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

얼마전 공화국의 평양야동 백화점에서 제2차 평양시인민 소비품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평양시안의 170여개의 인민 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 만든 1 100여종에 34만 4 000여 점의 질 좋고 다양한 소비품들이 출품된 전시회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늘어난 품종수와 제품의 질도 그렇지만 출품된 제품들이 생산단위들에서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으로 하여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중에는 평양구두공장, 보통강

신발공장, 전진신발공장, 서성송도구두제작소를 비롯한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한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신발제품들도 있었다.

전기밥가마와 증기다리미를 출품한 평양자동차기공장의 전시대도 가정주부들의 발길을 그칠줄 몰랐다. 《이 공장의 전기밥가마를 써왔는데 수입산제품보다 밥짓는 시간도 짧고 밥맛도 좋았습니다. 증기다리미도 사용이 편리합니다. 뛰니뛰해도 우리가 만든것이 제일입니다.》 증구역 서창동에서 산다는

리영옥녀성의 말이였다. 여러가지 화장품원료들을 국산화하고 새 제품개발을 다그치고있는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만든 화장품들과 새로운 균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만든 만경봉건강제품생산소의 천연 피부보호제품들도 녀성들의 생활에 보다 큰 생기와 활력을 부여해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고있었다.

전시회에는 군중의 찬발성을 발동하여 만든 다양한 소비품들도 출품되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평양시 선교가내생산협동조

합에서는 가내반원들의 창발성을 발동하여 만든 71종에 400여점의 각종 소비품들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에 출품된 제품들은 각이하고 출품단위들도 서로 달랐지만 전시회장을 돌아본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자기 힘이 제일이다》, 《우리가 만든것이 제일 좋다》...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준 이번 전시회는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소비품생산을 보다 늘여나가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춘경



유구한 역사를 가진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계절향비가 세워졌다. 우리는 립금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과 함께 계절향비가 있는 관광정장에 이르렀다.

계절향비는 입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을 몰아내는 싸움에서 한복속 바친 계절향의 애국심을 전하기 위하여 1835년 6월에 세운것이다.

화강석들을 네모나게 다듬어 세우고 글을 새겨넣은 계절향비의 높이는 1m, 너비 40cm, 두께 12cm이며 윗부분은 약간 활동모양이었다.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계월향비

비석에 새긴 옛글을 바라보며 립금식실장이 이야기하였다.

《원래 이 비는 계절향의 애국심을 찬양하여 울밀대 남쪽에 사당을 짓고 거기에 세웠던것인데 그후 립광정으로 옮겨왔습니다.》

비문의 앞부분에는 진주 측

석루아래서 적장의 목을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애국녀성 문개와 계절향을 대비하면서 왜적을 죽인 공로는 노 너이니 같지만 기이한 계획은 계절향이 뛰어났다고 적여져있었다.

입진조국전쟁시기 왜놈들이 평양성을 일시 강점하였을 때 미처 피난가지 못했던 계절향은 비천한 기생이었지만 평양성을 탈환하는 싸움에 한몸바칠것을 결심하였다.

계월향은 왜놈들의 시종을 드는척 하면서 적정을 탐지하여 아군부대에 통지해주었다. 계절향은 아군의 공격을 용이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평안도 방어사인 김용서를 은밀히 성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 적장수놈을 죽이

게 하였다. 계절향은 늙을 유인하다가 가루개고개에서 배를 갈라 자결하였다. 그후 아군은 혼란에 빠진 왜놈들에 대한 총공격을 벌려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오늘도 사람들은 평양성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한 계절향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가 살던 곳을 (월향동)으로, 그가 자결한 고개를 (가루개고개)라고 부르고있습니다.》

비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옛 선조들이 쓴 글자들이 아저졌다. 계절향비는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위해 한복속바친 애국적소행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는것을 보여주었고, 장속영

인민족의 돼지귀종다리보쌈

돼지귀종다리보쌈은 돼지귀와 종다리로 보쌈을 만든 다음 여러가지 조미료로 맛을 들인 요리이다. 돼지고기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함께 비린, 팜질 등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로운 허약, 피로, 빈혈, 허리아픔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질하여 삶는다. 돼지종다리는 삶아서 일정한 크기로 썬다. 돼지귀와 종다리에 다진 마늘과 생강, 소금, 맛내기, 후추가루를 두어 맛을 들인다. 이것을 일정한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고 향미나리, 도마도, 레몬으로 장식하여 낸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 녀자 열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녀자들이 약해보여도 여럿이 뭉치면 그 어떤 일도 해낸다는것을 이르는 말.
- ◆ 어머니의 사랑은 늙지 않는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는 늙지만 자식들에 대한 사랑만은 세월이 가고 한생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 ◆ 어머니생각은 자식한테 가있고 자식의 생각은 틀에 가있다.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고이 키우지만 자식은 다른 곳에 정심을 판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사화 백의종군 원 말이냐 (1)

그림 채대성

입진조국전쟁이 터지기 아직 여러해전인 1584년 1월 눈보라가 모질게 부는 어느날이었다. 세찬 눈보라를 헤치면서 함경도 건원보(오늘의 경원군)의 군영을 찾아가는 웅 사람이 있었다. 오래동안 고생을 겪으며 먼길을 걸어온 듯 껍집은 옷은 누더기해지고 신은 찢어진 신발이 되었다. 배수건으로 칭칭 둘러감았건만 코와 귀가 어떻게 얼어든 그 사람의 모양은 이루 말할수 없이 초췌하였다.

《예, 리권관님이 여기 계신대기에...》 《리권관이라니? 어느 권관말인가?》 권관이란 종9품의 제일 아래급의 무관벼슬이었다. 당시 각 만호, 참사진들에 권관을 몇사람씩 두고있었다. 《충청도서 왔다는걸 보니 리순신권관을 찾게 분명하오. 그 어른의 고향이 충청도라 하지 않았나?》 《그럼직하네.》 《어보시오, 그런데 그 편은 뉘시우?》

군사들은 다시 맥없이 누워있는 낯선 사람에게 물었다. 《나는 리순신권관의 아산본집 하인인데 아버님의 부고를 가지고 왔소.》 《아니, 부고라니?》 군사들이 모두 필적 놀라자 아산서는 하인이라는 사람도 일어나 앉았다. 《권관님의 부친께서 지난 동지달 보름날에 돌아가셨소.》 《아니, 이런 변이 있다. 어서 리권관제 알려야겠네.》 《젊은 권관제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여기서 지금 리권관으로 불

해방전 함흥시의 어느 한 빈민촌에서 태어난 유원준은 인력거도 끌고 우유배달도 하면서 고달픈 나날을 보냈다. 험벗고 굶주리며 살아온 그의 가슴속에 새겨쳐놓은 남다른 꿈이 있었으니 그것은 인기있는 영화배우가 되는것이였다.

나라가 해방되고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던 소원을 이룰수 있었다.

어느 한 극장에서 연극배우생활을 시작한 그는 해방 후 첫 예술영화 《내 고향》(1949년)에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해방전 일제와 착취계급의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온 주인공 판필의 형상은 유원준의 과거와 너무도 비슷하였다. 그러것으로 하여 그가 맡은 주인공역은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형상되었다.

그후 예술영화 《내 고향》이 완성되어 상영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렇게 영화배우로 방향전환을 한 그는 그후에도 《최학신의 일가》, 《춘향전》, 《열네번째 겨울》, 《평범한 사람》, 《위대한 품》을 비



롯한 수많은 예술영화들에 출연하여 관록있는 배우로서의 자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유원준은 독특한 목소리와 행동거지 등 개성적인 특성을 늘 보존하면서 그것을 각이한 인물성격에 맞게 굴절시켜 역형상을 새롭고 인상 깊게 하곤 하였다.

그의 연기형상은 다부작에 출연한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서 주인공 강태관역을 수행할 때 절정에 이르렀다. 영화에서 그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씨름판에 뛰어드는 패기있고 생동한 역형상은 매우 인상깊으면서도

인준의 값높은 한생 그대로였다. 김일성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은 그는 로력영웅, 인민배우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은 농작물들과 봉헌화를 비롯하여 꽃모, 담배모, 나무모도 심으며 한해농사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들에 파르파르 돌아다니는 나물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으며 봄의 향취를 느끼었다. 대표적인 나물로 병이와 달래를 들수 있다. 병이는 잘게 썰어 죽을 끓여먹으면 밥맛도 좋아지고 기력도 왕성해진다고 하면서 식생활에 달래를 이용하였다. 달래는 식용뿐 아니라 약재로도 널리 쓰이였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경칩, 춘분시기에 돌아다니는 여러가지 약초들을 캐어 진사해두기도 하였으며 농사일의 흥을 돋우고 한해농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농악놀이도 진행하였다. 올해의 경칩은 3월 5일이 고 춘분은 3월 21일이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해철보무지개바위



해철보무지개바위는 함경북도 평천군 보촌리 평평마을 바닷가에 있는 기암이다. 하늘높이 걸린듯 한꼴은 산비탈면에, 다른 한꼴은 바다에 박힌 그 모양이 마치 무지개처럼 생겼다고 하여 무지개바위로 불리운다. 무지개바위의 동쪽은 바다이고 서쪽은 낮은 언덕으로 되어있다. 북쪽에는 높지 않은 바다가 바위에 있고 그물에 둥근 바위들이 있다. 서쪽 낮은 언덕에는 소나무, 도토리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어 이 바위 주변에 있는 누른색의 화성암들과 잘 어울려 풍치를 돋구어주고있다. 허성철